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반모임 순서

- I. 성호경, 성가, 예수님 초대 기도
- II. 묵상
 - †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 † 복음 읽기
 - † 말씀에 머물기
 - † 말씀의 울림
 - † 말씀에 잠김
- III. 생명말씀 및 실천사항 정하기
- IV.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
- V. 소공동체 기도문
- VI. 마침 성가

묵상 길라잡이

-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 마음 열기
 - 복음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집중하여 듣습니다.
- 말씀에 머물기
 -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구절을 적은 뒤 “이것이 오늘 나의 어느 부분에 다가왔는지”에 대해 묵상합니다.
- 묵상과 말씀의 울림 나누기
 - 묵상한 부분을 형제자매님들과 나누어 봅니다. <말씀의 울림>을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 말씀에 잠김
 - 본당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누고픈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빛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에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몸이 되신 말씀이옵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을 제 위에 보내시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옵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소공동체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 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20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있어났다. 곧 23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25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말씀의 울림

- 18 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Now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탄생(나, 자녀 등)의 순간과 기억을 떠올려보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 24 절: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When Joseph awoke, he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had commanded him and took his wife into his home.)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며 실천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에 잠김

23 절: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is with us.)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아 드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현존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은 중학교 졸업여행을 워싱턴 디씨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출발이지만 들뜬 마음에 5시까지 학교에 가고 싶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 입장에서는 며칠 동안 얼굴도 못 보고 내가 없는 곳에서 아이가 잘할까 걱정되는 제 마음도 모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발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낮 4시 정도쯤 목이 아파서 말을 못 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상황에 한 시간 뒤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해주었고 목이 아파서 말을 못 한다고 해서 우선 아들 친구에게 아픈 상황을 선생님께 설명해드리고 도착해서 학교 간호사에게 약을 받아먹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스크를 쓴 상황이니 아이들 일정에 합류한다고 아들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떨어져 있는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내가 혹시 지금이라도 아들을 데리러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간호사가 저에게 화상 진료로 의사를 만나겠냐고 물어봐서 저는 그렇게라도 의사가 아들을 진료할 수 있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난 밤 11시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코비드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고 의사가 처방해준 약 먹었다고, 목이 아프지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울고 있었지만 씩씩한 척 “엄마 기도했어, 내일이면 아프지 않고 친구들이랑 안전하게 놀다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또 아프다고 말할까 봐 무서워서 저는 남편에게 빨리 좀 전화해보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안 아프다고 지금 바쁘다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아프지 않고 바빠서 전화 못 받는다고 문자로 보내라고 하는 아들에게, 물을 많이 마셔라, 식당에 가면 추우니깐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라, 숙소에 가면 전화해라, 이것저것 걱정이 되어 잔소리를 문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통화한 아들의 목소리는 아주 즐거운 듯 들려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득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프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저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걱정하던 저도…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였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불안한 제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1 1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2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9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12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13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15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16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17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18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

말씀의 울림

- 6, 7 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A man named John was sent from God. He came for testimony.)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한 이들 (마리아, 요셉, 세례자 요한 등) 의 역할들을 묵상해보고, 나는 어떠한 역할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 9 절: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The true light, which enlightens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살아오면서 힘든 상황이라는 어둠 속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참 빛’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말씀에 잠김

14 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어릴 적 우리 집은 아버지가 초대한 이들로 북적이곤 했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행색이 남루한 아이를 엄마가 머리를 감기고 씻기고 계시거나, 어느 날은 몸이 불편하거나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집 밥상을 짝 채우고, 그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이 차려져 있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초대해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돌아갈 때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 학용품 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어린이날에는 선물을, 소풍날에는 엄마가 짬 김밥을 큰 가방에 담아 김밥 없는 아이를 찾아 나누어주러 다니곤 하셨습니다. 기쁘게 이 일들을 하시는 부모님과 달리 저는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껴두었던 물건들이 우리 집을 다녀가는 아이들 손에 쥐어져 있거나 입혀져 있고 때로는 머리에 대롱대롱 달려서 나갈 때는 무척 속상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떨 때는 눈물을 푹푹 흘리기도 하고, 토라져 있는 저를 달래시며 ‘네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베풀고 나서는 바로 잊어버려라.’ 항상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가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는 논어와 맹자를 통해 공자와 맹자를 알아가셨듯이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라는 분에 대해 알아가셨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만나고 너무나 좋은 나머지 성경 필사도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필사 중 성경 안에서 만난 예수라는 분과 말씀에 감탄해 어느 날 혼자 성당을 찾아가셔서 ‘초대받은 당신’이라는 교리서와 성당 이름이 적힌 가방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성당을 다니시더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기뻐서 환하게 웃으시는데 빛이 나던 얼굴과 사람들이 아버지를 필레몬이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후 웃음과 유머가 더욱 많아진 아버지가 기쁘게 변해간다는 것을 세례를 받지 않은 우리 세 명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전교하지 않았지만, 세례 후 점점 행복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에 이끌려 우리 가족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정도 아버지로 인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례 후 더욱 확신에 찬 듯한 모습으로 기뻐하며 용기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버지와 함께 시골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의 집을 찾다니며 수십 개의 선물 세트를 나눠드리고 세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지오 단원이 되신 아버지는 큰아버지께서 위암으로 투병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성당 내 암 투병 교우들을 방문해 단원들과 기도드리고,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쌀 한 가마니와 함께 성경 구절을 적은 돈 봉투를 건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삶을 꾸준히 살아나가셨습니다. 어느 여름 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다녀가신 후,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손자의 모습을 눈에 담아 가셨나 봅니다. 그 후 외국인 선생님들을 집으로 초대해 음식을 나누고, 이민자, 외국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교장실로 데려와서 간식과 선물도 주고, 꼭 안아주며 그 아이들 부모의 나라에 대해 같이 인터넷을 찾아보고 얘기도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교장실을 제집처럼 드나들던 아이가 아버지의 은퇴식에서 그렇게나 울었다며 그 아이가 쓴 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행적들 때문인지 설이 있는 그 달은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제자부터 근래의 제자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그때 곁에서 또는 멀리서 아버지와 제자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나누는 얘기를 듣노라면, 오가는 대화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행복해지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칠순을 넘긴 지금도 아버지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시는 분 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내는 일이 아버지라고 쉽기만 하였을까요? 곁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아내가 무리가 되어 아플 때, 소중한 물건과 시간을 빼앗긴 듯 속상해하는 자녀의 표정을 바라볼 때… 가끔은 아버지를 주저하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의 짧은 한순간, 삶의 한 귀퉁이에도 말씀을 담아내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말씀이 한 사람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에서 사실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 구절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림 시기에 아버지를 떠올리며 구유를 바라보니…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 몸과 눈높이를 낮추어 구유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바로 그때 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볼 수 있고, 아기와 기쁨의 눈맞춤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바쁘다는 이유로 이렇게 단단해져 버린 마음과 뻗뻗해진 목과 시선으로는 아기 예수님을 안아드릴 수도 볼 수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께 말씀 앞에서 저를 낮추고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해봅니다.

나눔메모

함께 나누는 이야기

해석이 창조이다.

이귀염 크리스티나

언젠가 우연히 어느 분의 흘리듯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각인된 문장이 있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어떤 일에 부딪힐 때마다 꺼내어 사용하는 삶의 유용하고 명쾌한 어찌면 영똥한 두 마디입니다.

‘해석이 창조이다.’

처음 듣자마자 호기심이 생기는 단어의 조합이란 생각이 들었고 요즘 언어로 ‘신박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읊조려 보았습니다. ‘해석이 창조, 해석이 창조, 해석이 창조…’ 뭔가 묵직하게 의미가 깊은 말씀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는 저절로 마음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문제 해결의 연속인 삶이라고는 하지만 이 문제들은 자주 그리고 조금씩 더 어려워져만 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딪힘의 순간에, 나를 바로 세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방법보다 힘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믿음과 풀어내기 힘든 나의 문제 사이에서 번번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도록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쓸 때 하나씩 저장해 두었던 도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해석이 창조’라는 말은 제가 저에게 속 시원한 도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좋은 해석이 인간 창조와 같은 선상의 단어로 표현됐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차게 속이 시원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창조라는 말은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광경처럼, 해가 물 위로 올라오는 장관처럼, 고해소의 문을 열고 나오는 발걸음처럼, 가족과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한 후 나오는 눈물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이의 배려로 인한 감동처럼, 가슴 벅찬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나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처럼 앞에서 막혀버릴 때도 ‘창조를 위해서…’라고 거꾸로 해석하면 또 이해되고 어느 방향으로 문제를 집어넣어도 한가지 답이 나오는 신기한 공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조금 이상한 이해 방식일 수도 있지만, 이 방법으로 내가 웃고 살아가고 힘을 낸다면 이 역시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대림 시기를 맞이하며 더욱 영똥한 저의 희망이 있습니다.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보면 정확되는 느낌, 이전의 고통이 잊혀지는 느낌, 다시 새로워지는 느낌, 그리고 완전한 안식처를 보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해석으로 내가 정확되고 새롭게 창조되어 삶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 희망해 봅니다. 더 나아가 구유의 아기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묵상이 담겨 있다고 믿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창조를 위해서 해석되기를…”

동네방네 메아리

- (TR3) 한 해를 마무리하며 고마웠던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도광 다니엘 & 김지현 세실리아 가정의 사위분이 트로이에 치과를 개원하였습니다. 반원 모두 축하하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 (TR4) 김민우 가브리엘 & 이영주 소피아 가정의 부모님께서 미국 방문 중 반 모임에 함께 참석하시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NV4) 즐거운 마음으로 대림 특강과 판공 성사에 임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 (RC3) 내 주위의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기로 하였습니다.
- (RC4)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며, 뜻깊고 즐거운 성탄을 보내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실천 사항

1. 대림을 맞아 주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가족과 성경 묵상 및 나눔의 시간 갖기
2. 성탄을 맞아 이웃에 온정을 나누기
3.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정성 어린 마음으로 판공성사에 임하기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주최)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주최)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문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